



## 순천대 서정희 5관왕 명중

연맹회장기 양궁 캠퍼스 운동부문

30·50·60·70m·개인종합 1위

서정희(22·순천대학교 3·사진)선수가 지난 주 끝난 제17회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양궁대회 캠퍼스 운동부문에서 5관왕을 차지했다.

서정희는 이번 대회에서 30m, 50m, 60m, 70m, 개인종합에서 1위를 차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협회 종목인 양궁의 미래를 이끌 재목으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이 대학 양궁팀 감독인 사회체육학과 박진성 교수와 전 국가대표 출신인 김문선 코치의 지도를 받고 있고 있는 서정희는 지난 6월 슬로바키아에서 열린 제6회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서도 한국 대표로 참가해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했다.

서 선수는 “하게 훈련에서 체력과 기록평가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 기록이 많이 향상된 것 같다”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을 통해 더욱 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단 4년째인 순천대학교 양궁팀은 지난 6월에 개최된 제9회 한국대학 양궁오픈선수권대회에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전국 대학 양궁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미 노장골퍼 홀버그 “클럽하우스 지붕에서 샷”

경기위원 “OB 아니다”… 사다리 타고 올라가

우즈는 비슷한 상황서 무벌타 드롭 판정 받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지난 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대회에서 클럽하우스 지붕 위에 볼을 올리고 무벌타 드롭 판정을 받은 뒤 한 노장 골퍼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붕 위에서 샷을 한 일화를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30일(한국시간) AP통신에 따르면 PGA 투어 멤버 개리 홀버그(48·미국)는 198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힐스골프장에서 열린 룰루프리저트클래식 16번홀에서 아이언샷을 클럽하우스 지붕 위에 볼을 올리고 무벌타 드롭 판정을 받은 뒤 한 노장 골퍼가 비슷한 상황에서 지붕 위에서 샷을 한 일화를 소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성공했다. 갤러리들은 열광했고 홀버그는 “그린 환호를 받은 적은 처음이었다”고 회상했다. 반면 우즈는 26일 브리지스톤인비테이셔널 2라운드 9번홀에서 두번째샷을 클럽하우스 지붕 위에 올린 뒤 볼을 찾지 못했지만 경기위원은 클럽하우스는 OB 구역이 아니는데 분실구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려 무벌타 드롭을 허용했다. 이 볼은 나중에 골프장 직원이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김병현 8승 실패

‘한국산 핵잠수함’ 김병현(27·콜로라도로커스)이 부진한 투구로 시즌 8승 달성을 실패했다.

김병현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콜로라도 주 텐버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뉴욕 메츠와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4% 이닝 동안 허용 2개 등 안타 7개와 볼넷 2개로 7실점 해 패전투수가 됐다.

김병현은 지난 3일 밀워키전에서 승리한 후 시즌 8승에 5차례 도전했지만 4패만 당하

며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특히 지난 19일 뉴욕 원정에 이어 베테랑 우완 스티브 트락셀(36)과 선발 맞대결에서 2차례 연속 패배의 쓴맛을 봤다. 시즌 7승 10패를 기록하고 평균 자책점은 5.49(중전 5.18)로 올라갔다.

하지만 탈삼진 6개를 보태 시즌 104개를 기록, 1999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네번 째로 한 시즌 삼진 100개 이상 잡아냈다.

김병현은 5회 1사 3루의 위기에 놓인 뒤 벨트리를 삼진으로 처리했지만 멜가도를 볼넷으로 내보내고 라이트에게 우익선상으로 빠지는 2타점 3루타를 얻어맞은 뒤 팀이 3-6

으로 뒤진 상황에서 마운드를 넘겼다.

콜로라도는 5-10으로 패했다.

▲메이저리그<토론토-클리블랜드>(07·55·Xports)

▲KAL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13·50·MBC)

▲전국우수고교 볼링(14·10·KBS1)

▲신한동해 오픈 1R(15·30·KBS2)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스포츠)

▲부산컵 4개국 국제청소년축구(한국-아르헨티나)(18·45·KBS2)



31일(목)

▲메이저리그<토론토-클리블랜드>(07·55·Xports)

▲KAL컵 MBC 그랑프리 탁구대회(13·50·M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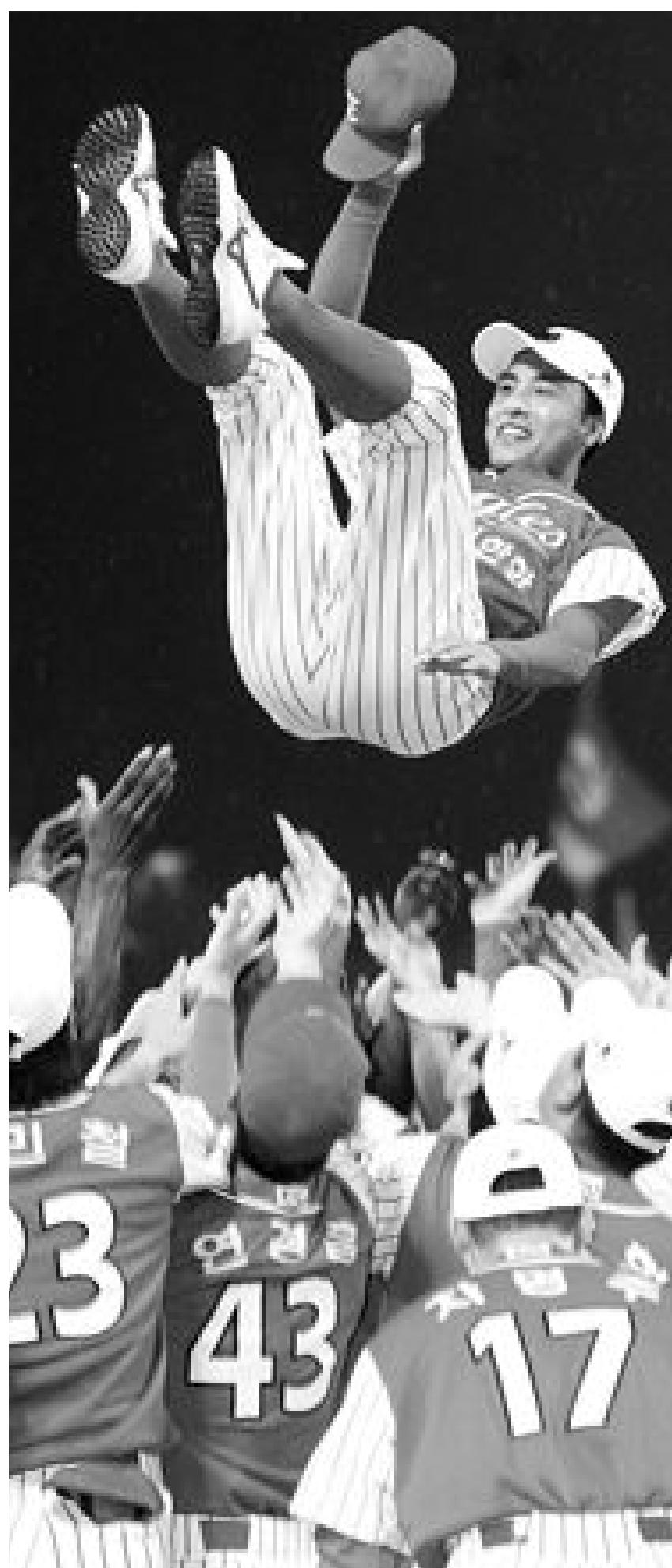
▲전국우수고교 볼링(14·10·KBS1)

▲신한동해 오픈 1R(15·30·KBS2)

▲일본프로야구<요미우리-히로시마>(17·50·SBS스포츠)

▲부산컵 4개국 국제청소년축구(한국-아르헨티나)(18·45·KBS2)

## 40세 송진우 200승 쌌다



29일 한국 프로야구 투수 최초로 200승을 달성한 한화이글스의 송진우가 동료들의 행거를 받고 있다.

한국야구사상 첫 대기록

최고령 승리투수도 경신



삼성PAIV 프로야구

‘살아있는 기록’ 송진우(40·한화)가 ‘4전 5기’ 끝에 한국야구사에서 가장 빛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송진우는 29일 광주장에서 벌어진 2006프로야구 KIA와 원정경기에서 선발투수로 나와 5이닝을 4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 10-1로 팀 승리를 이끌어냈다.

이로써 송진우는 1989년 4월12일 롯데전에서 완봉승으로 데뷔전을 장식한 이후 18시즌만에 최초로 개인통산 200승을 달성하는 대위업을 이룩했다.

투구수는 총 93개, 직구 최고구속은 137km에 불과했지만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적절히 구사하는 노련함으로 KIA 타선을 잡제웠다.

투수 200승은 미국에서는 108명, 일본은 23명을 배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200승은 지난 해 은퇴한 이강철(152승)과 선동열(146승) 삼성감독이 다음 순위 2,3위에 올라 있지만 현역 선수 가운데는 팀 후배인 정민철(34)이 142승에 불과할 만큼 대기록으로 당분간 송진우가 수립한 금자탑은 깨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송진우의 200승은 18년동안 총 580경기에 등판해 2천801이닝동안 1만1천827타자를 상대해 무려 4만5천766개의 공을 던지며 팔을 이루는 산물이다. 마운드에 오를 때마다 투수부분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송진우는 그동안 142패를 당하기도 했지만 구원투수로도 활약하며 102세이브를 기록, 일본의 애나운터카(206승 193세이브)에 이어 세계에서도 번째로 ‘200승-100세이브’를 달성한 선수가 됐다.

국내 프로야구 최다승은 물론 최다이닝, 최다 탐진(1천920개) 등을 보유중인 송진우는 이날 또 하나의 의미있는 기록을 추가했다.

1966년 2월16일 생으로 최고령 완봉승과 완투승(이상 39세6개월23일) 기록 보유자인 송진우는 이날 40세 6개월13일의 나이로 승리투수가 돼 박칠순이 보유한 최고령 승리투수 기록(40세5개월23일)도 아울러 경신했다.

**BRAVIA**

**SONY**

**브라비아**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실시!**

R Series V Series E Series S Series

■ 소니코리아 공식 서비스 홈페이지 SCS(SCS.sony.co.kr)에서 정품 등록을 확인하세요!  
■ 단, SXRD와 LCD 프로젝션 램프는 소모품이므로 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 브라비아 A/S 전용라인 1588-7357  
제품구입 및 문의 소니 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  
소니 공식 서비스센터 062)514-3000

불교방송 임동오거리 광전동

Challenge my eyes!  
**BRAVIA** 브라비아

### 매일부동산

전화 011-813-3334㈹ (02)233-3372

(법원 경매법령 및 건물)

### 공장

• 나주 금천면 동의리

대742/건185 2억9천

• 나주 금천면 고동리

대430/건304 3억

• 나주 오랑동 농공단지

내1대1536/건333

3억5천

### 모텔

• 북구 신안동 대12/

건362 2002년식

빙28개 5억

• 북구 중흥동 대12/

건411 2002년식

빙35개 4억 5천

### 투자적합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

• 주유소 매매 6억원

• 기존 휴게소 식당용

도곡온천입구 국도점

500명×60면